

## 서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 롬 14:10~23

구원의 특징은 깨어진 교회의 회복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형제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며 형은 동생을 돕고 동생은 형을 신뢰하는 이런 가족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형제들은 무섭게 싸웁니다. 서로 만나지도 않고 미워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아름다운 교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후에 집에 모여 떡을 떼고 찬송을 부르면서 헤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물건까지 나누어 쓰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축복은 서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교회는 교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예배’입니다. 일주일동안 세상의 한복판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만나 투쟁하며 일하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없습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면 순모임입니다. 예배시간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기도나 관심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모임에 가면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코트를 받아주기도 하고 차를 대접하고 찬송을 같이 부르고 성만찬을 나누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의 깊은 사정을 들어주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종종 유감스러운 일도 생깁니다. 그것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들끼리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되고 또 참다가, 상처받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급기야는 대면조차 하지 않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누구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혹은 교회는 나오지만 순모임에는 가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고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처가 생길까요? 사랑해야 할 형제들에게 왜 이런 갈등이 생길까요? 오늘 로마서 14장 1절과 10절에서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첫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몸도 크고 지식도 많지만 아직도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입니다. 이때 교회에 오래 다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거부하고 비판하게 되면 그들은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안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서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상대도 믿음이 좋고 나도 믿음이 좋은데 서로 문화적인 차이나 성격적인 차이, 감정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길 때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시험에 들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 형제이므로 사랑해야

오늘은 10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아니고 형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롯에게 ‘네 목자나 내 목자를 싸우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한 골육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 중에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 못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지만 어떤 아이는 상처를 많이 받고 어떤 아이는 건강한데 어떤 아이는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잘 안 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족입니다. 다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족은 그런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부모는 약하거나 상처가 많은 아이일수록 더욱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추하고 허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모두 눈감아주고 봐주고 모른척하고 해서 그렇지, 있는 그대로 보면 추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자녀라는 존재가 얼마나 약하고 실수가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감싸주고 이리저리 관리해서 성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보면 우리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세워주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약한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참아 주라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집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업신여긴다는 말은 낮추어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남을 업신여기고 낮추어 보지 말라는 이유는 모두 다 자기만 잘난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장 많이 틀렸을지 모릅니다. 야단치고 남을 비판하는 당신이 더욱 실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돼

또 하나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교회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불평을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장파장이라는 것입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엄밀한 의미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잘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같은 것입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지게 되고 모든 혀가 진실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는 내가 잘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이 비굴함과 고약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거나 잘된 일이 있다면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이것은 가족 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한 자녀를 편애한다고 생각할 때 다른 형제는 말은 못하지만 속상해 할

니다. 부모가 한 자녀를 편애한다고 느껴질 때 다른 형제들은 속상해 합니다. 그리고 불만을 품습니다. 불만을 표현하지는 않지만 축복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가 넘어질 것 같은 곳에 걸림돌을 가져다 놓고 넘어지기를 기다립니다. 또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체합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인간에게 이런 추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13절을 통해 성경은 단호하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두번째는 걸림돌에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기 전에 치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도바울은 14절에서 중요한 결론을 우리에게 내립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에는 속되니라”

음식이 왜 나쁘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음식을 가지고 이것은 제사음식이니까 귀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고 채소는 먹어도 된다’고 율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음식자체가 속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속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속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놀라운 원리입니다.

### **속되다고 여기는 자에게만 속된 것**

돈도 그렇습니다. 돈을 잘못 쓰는 사람이 나쁜 것이지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들에 율법과 전통, 제도를 만들어서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성경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니체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죽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속된 것이 아닙니다. 속되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속된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케 하지 말라”

당신이 미워하는 형제를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오만은 ‘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사람들은 자기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은 누군가를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사랑할 것도, 덜 사랑하는 것도 없어야 합니다. 더 사랑하면 감정이 들어갑니다. 감정이 들어가면 상처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통이나 제도나 방법이나 습관이 아닙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먹고 마신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배부른 데에서 시작은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음식을 잘 먹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가끔 그럴지요 그러나 대개 지나치게 많이 먹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고 후회하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다. 배부르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동물은 그럴 수 있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의로운 것보다는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익이 선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평강의 반대되는 개념은 '투쟁'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투쟁과 폭력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이유가 선하다고 할지라도 투쟁하는 일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투쟁의 목표는 이익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용주가 되었던 노동자가 되었던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죽이고 투쟁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같이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방법은 평화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입니다. 투쟁과 폭력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훔친 물건을 손에 가득 쥐고 긴장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얼굴에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평화가 없고 남의 밉고코트를 입어도 평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싼 시계를 훔쳐서 내가 꺼봐야 마음만 두근거립니다. 거기에 평화가 없습니다. 땀 흘려 노력한 자에게만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에는 영적인 기쁨이나 보람, 감사, 감격이 없습니다. 오늘 현대인의 눈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유해지면 인간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배고파야 감사가 있습니다. 없어야 귀한 줄 압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기쁨이 있는 사회, 투쟁과 폭력이 있는 사회가 아니라 평화가 있는 사회, 불의와 이익만이 있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사회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에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사람에게에도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람에게에도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을 받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칭찬을 받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강패나 도둑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십시오.

저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 나라에 무슨 역할을 하며 목사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할까 하는 것 때문에 잠을 설치면서 고민합니다. 대답은 명료했습니다. 온 국민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사회,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사회, 쾌락이 아니라 영적기쁨과 정신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숙제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우니라”

우리가 이 민족의 평화의 제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덕을 세우고

있습니까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와 교회가 세상에 덕을 세우는 모습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십시오. 전통이나 제도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만물이 모두 정하게 창조되었는데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만든 것은 인간입니다. 아무리 걸치레를 아름답게 해봐도 인간의 내부는 썩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한 대로 인간의 내부는 악의 제조공장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썩어버리고 부패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과 이성입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에게 시험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7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 일은 악이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것이 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기준인가**

왜 형제를 미워하고 비판합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성경도 이렇게 생각하는가를 생각하십시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일이 성경에 있으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없다면 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기중심으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7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십시오. 빨래하라고 하면 빨래하고 아기보라고 하면 아기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날 월로 알고 그러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또한 부인들은 ‘나는 남편의 종이요’ 하고 살고 목사는 ‘나는 성도들의 종이요’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 체면이 문제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대의 기준으로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이 좋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여기까지 와야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13장에서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4장에 와서는 아예 기준을 바꾸어 내 기준으로 살지 말고 상대방의 기준으로 살라는 말을 합니다.

‘사나 죽으나’라는 말은 이미 죽었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는 말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믿음의 소신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기준을 바꾸어 살기 때문에 나를 괴롭힐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기 만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기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어느 위원회를 가든지 어느 순에 가든지 어느 봉사직에 가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말한다면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기준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때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머리숙인 당신의 종들

이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